

TDB 경기동향조사(전국) — 2013년 12월 조사 —

경기 DI는 49.5, 과거 최고를 2개월 연속 갱신

~ 경기 상승은 지방권, 소규모기업 등 실태경제로도 확산되어 기세를 더하고 있다 ~

(조사대상 2 만 2,884 사, 유효회답 1 만 375 사, 회답률 45.3%, 조사개시 2002년 5월)
< 2013년 12월 동향 : 경기 상승 가속 >

2013년 12월 경기동향지수(경기 DI : 0~100, 50이 판단분기점)는 전월대비 1.2포인트 증가한 49.5로 6개월 연속 개선, 전월에 이어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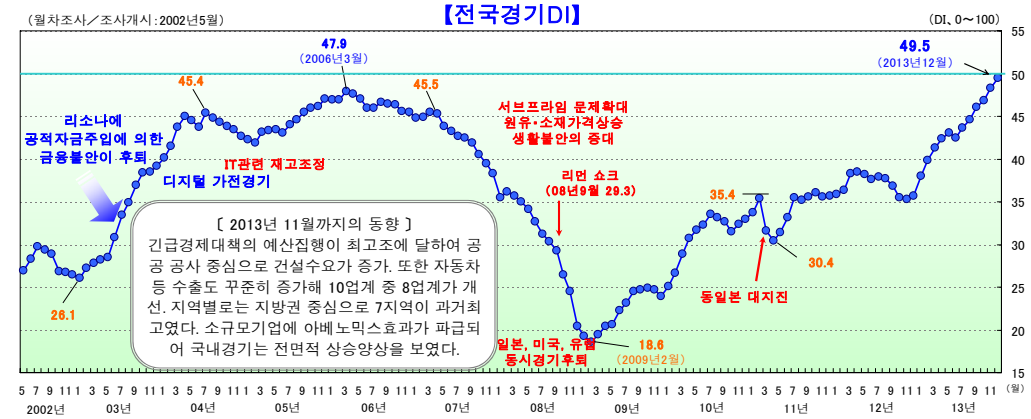
12월은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세증세의 막바지 수요,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수요확대 영향이 있었다. 또한 주택 이외 내구소비재 판매도 호조를 보였다. 동절기 상여금 증가로 인한 고액상품 판매 증가, 섬유제품 등 고품질 지향 회복으로 인해 일본제에 대한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 철강관련, 내구재 소매 등을 포함한 51업종 중 11업종에서 과거 최고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지방권 6지역이 과거 최고, 규모별로는 소규모기업이 최대 개선폭을 보이는 등 규모간 격차도 축소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2개월 연속 과거 최고를 갱신하는 요인이 되었다.

아베노믹스효과는 지방권의 실태경제로 꾸준히 확대되어 국내경기의 전면적 상승세를 더하고 있다.

조사결과 포인트

1.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의 전규모에서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 규모간 격차의 4개월 연속 축소로 아베노믹스효과가 폭 넓은 분야까지 파급되기 시작했다.
2. 『소매』는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자동차, 가전·정보기기 등이 1년 전과 비교해서 급격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섬유제품, 전문상품은 30대에 그치는 등 업종간 양극화로 10업종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농·임·수산』은 「일식」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일본산 수산물의 수출 호조, 식품위장표시문제로 인한 양식어 가격상승이 더해져 대폭 개선되었다.
3.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호쿠리쿠』 『큐슈』 등 6지역이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 한편 소매, 서비스 등이 높은 『미나미칸토』, 『킨키』에서는 건설, 부동산 등 공공 공사 관련이 낮아 전체를 하회하는 상황이었다.

2014년 1월 9일
 주식회사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 HP <http://www.tdb-di.com/>



< 향후 전망 : 상승 지속 >

향후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동향에 있어 최대 걱정거리로, 개인소비 약화에 대한 불안을 없앨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금융완화축소 타이밍도 주시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의 악영향을 완화시킬 5.5조엔 규모의 경제대책이 본격화되어 공적 부문에서는 어느 선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기업은 2014년 경기에 대해 악화국면보다 회복국면을 기대하고 있고, 대체로 개선경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2014년 경기전망에 대한 기업 의식조사」(데이코쿠데이터뱅크), 임금상승, 디플레이션 탈각 등 아베노믹스에 대한 성과를 바라는 경향도 강해질 것이다. 특히 투자, 임금인상을 추구하는 법인세감세 실시, 엔저정착, 도쿄올림픽 전 인프라정비, 시스템정비, 시스템개발 등 관련사업이 유리한 재료가 되며, 해외관광객 증가도 기대된다. 소비세증세의 거센 세파를 상회하는 유리한 재료에 대한 기대로 국내경기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경기DI	2012년12월	2013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35.7	38.0	39.8	41.3	42.4	43.0	42.5	43.6	44.6
전월대비	0.4	2.3	1.8	1.5	1.1	0.6	▲0.5	1.1	1.0
경기DI	2013년9월	10월	11월	12월	경기예측DI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46.1	46.8	48.3	49.5		50.1	52.3	51.9	53.2
전월대비	1.5	0.7	1.5	1.2	2013년12월대비	0.6	2.8	2.4	3.7

※1: 색상이 없는 부분은 개선, 황색은 보합, 청색은 악화를 나타냄

※2: 경기예측DI는 ARIMA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모델로 분석

업종별: 전 10 업계가 개선, 51 업종 중 11 업종에서 과거 최고를 갱신

- 『건설』 『제조』 『도매』 『운수·창고』 『서비스』 가 6 개월 연속, 『부동산』 『소매』 가 2 개월 연속, 『농·임·수산』 『금융』 이 2 개월만에 개선되었다. 건설, 철강 관련, 내구재소매를 중심으로 51 업종 중 11 업종에서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 또한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가 6 개월 연속, 「전기통신」이 2 개월만에 개선되어 전 51 업종이 지진 전(2011년 2월) 수준을 상회했다.
- 『농·임·수산』 (45.5) … 전월대비 5.2 포인트 증가. 2 개월만에 개선되었다. 「일식」이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위장표시문제로 국산수산물 수요도 증가하여 양식어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공공 공사 증가, 주택 등 막바지수요로 목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산림·임업 재생계획”에 의거한 반출간벌사업의 실적이 증가하는 등 임업관련도 호조를 보였다. 축산은 식조시세 상승 지속과 연말수요로 인해 꾸준히 증가했다.
- 『제조』 (48.2) … 동 1.3 포인트 증가. 6 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소비세증세 전 막바지수요가 제지업, 종이가공업에 확대되고 있는 「펄프·종이·종이가공품 제조」(46.9, 동 4.0 포인트 증가)가 과거 최고를 갱신했고 자동차메이커의 신차판매 호조로 생산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운송용기계·기구제조」(55.3, 동 1.6 포인트 증가)가 2 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전체 12 업종이 개선되었다.
- 『소매』 (44.0) … 동 1.0 포인트 증가. 2 개월 연속 개선. 2006년 3월(45.8) 이래 7년 10 개월만의 수준이 되었다. 막바지수요, 재생가능에너지의 수요확대를 보인 「자동차·동부품소매」(52.5, 동 1.2 포인트 증가), 「가전·정보기기소매」(53.2, 동 6.8 포인트 증가)등이 50 을 상회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각각 20.4 포인트 증가, 19.1 포인트 증가로 2013년은 급격히 개선된 1년이었다. 그러나 「섬유·섬유제품·복식품소매」(38.0, 동 1.7 포인트 증가)와 「전문상품소매」(38.3, 동 1.0 포인트 감소) 2 업종은 30 대에 그쳐 업종간 양극화가 보이고, 『소매』는 전체 10 업계 중에서 가장 낮아 타업계보다 회복이 지연되는 양상이 보인다.
- 『서비스』 (51.3) … 동 0.7 포인트 증가. 6 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엔저, 여권(비자)의 조건 완화로 인해 방외외국객 증가, 국내여행이 호조인 「여관·호텔」(50.5, 동 1.0 포인트 증가), 공공사업, 막바지수요 증가, 도쿄올림픽 결정 등으로 측량, 건축설계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전문서비스」(55.2, 동 0.3 포인트 증가) 등 15 업종 중 12 업종이 개선되었다. 『서비스』 전체는 『건설』(57.2)에 이어 10 업계 중 2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되었다.

	12년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과거 최고
농·임·수산	34.9	36.0	36.8	35.7	35.4	39.7	39.5	41.0	37.8	40.1	40.8	40.3	45.5	5.2	
금융	36.2	41.3	42.4	41.9	44.7	44.4	44.0	44.6	45.0	45.6	46.4	45.7	47.9	2.2	
건설	38.7	41.9	43.8	45.3	46.4	47.6	47.5	49.4	50.7	53.8	54.8	56.6	57.2	0.6	☆
부동산	37.0	40.9	45.7	46.8	48.8	49.2	47.7	49.3	48.4	49.9	48.8	49.5	49.7	0.2	
제조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0.1	
식품·음료·주류	33.4	34.5	35.6	36.8	38.7	38.1	38.7	39.3	39.0	40.4	40.0	41.3	41.8	0.5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5.6	36.9	37.3	38.1	39.9	37.8	37.8	40.2	39.9	40.3	40.4	40.1	42.4	2.3	
전체·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38.2	38.9	40.3	42.7	43.4	45.3	46.5	47.4	49.6	49.9	53.1	55.0	55.3	0.3	☆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	31.1	33.3	33.0	36.0	37.0	38.2	34.9	36.0	37.3	38.6	40.0	42.9	46.9	4.0	☆
출판·인쇄	28.3	29.6	31.4	32.8	32.8	33.1	31.9	32.1	31.7	33.8	34.7	33.6	34.4	0.8	
화학제품·제조	34.1	36.4	38.0	39.9	41.0	42.6	42.1	42.4	43.9	45.0	46.5	48.2	49.9	1.7	
철강·비철금속·광업	32.6	35.5	37.6	38.5	39.7	40.0	39.8	42.3	44.1	46.2	48.2	50.4	51.8	1.4	☆
기계·제조	32.7	36.3	39.2	39.8	40.0	41.0	40.8	42.8	44.0	46.0	46.8	49.7	50.7	1.0	
전기·기계·제조	32.8	35.8	38.2	38.4	40.1	41.9	40.2	42.3	43.3	43.7	44.6	47.6	49.4	1.8	
운송용기계·기구·제조	32.6	34.2	41.2	45.6	47.0	46.5	47.6	48.0	49.9	51.4	50.3	53.7	55.3	1.6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32.4	33.6	36.5	36.7	39.6	39.3	38.7	39.3	40.8	42.9	44.4	45.2	46.0	0.8	
기타·제조	31.0	31.3	34.8	35.4	35.6	33.3	33.7	35.9	35.1	36.7	34.8	38.0	41.2	3.2	
전체	33.1	35.3	37.4	38.6	39.7	40.3	40.0	41.4	42.5	43.9	44.9	46.9	48.2	1.3	
도매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0.1	
식품·음료·주류	33.9	34.6	35.3	37.1	38.0	39.4	38.6	39.7	39.7	41.0	39.2	40.3	42.1	1.8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4.3	34.7	34.6	34.5	37.5	36.4	36.3	36.6	36.5	37.8	37.7	38.2	38.1	▲ 0.1	
전체·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9.9	42.2	43.5	44.5	46.3	46.1	46.8	47.7	49.2	50.3	53.4	54.6	57.1	2.5	☆
종이·종이·종이가공품·도매	31.7	31.8	32.3	34.3	36.3	36.5	35.3	35.2	34.9	37.2	37.6	38.3	40.1	1.8	
화학제품·도매	34.6	35.9	36.1	38.5	39.7	41.4	40.2	41.0	41.9	43.2	43.9	45.8	46.4	0.6	
제철·정원·도매	32.1	41.9	48.8	50.6	50.6	46.6	43.1	46.5	44.4	49.4	52.1	54.3	53.9	▲ 0.4	
철강·비철금속·광업·도매	34.0	37.3	38.2	40.2	38.7	39.9	39.0	41.4	43.4	44.9	47.8	50.0	51.7	1.7	☆
기계·기구·도매	34.1	36.8	38.8	41.0	42.1	41.9	40.4	42.3	43.4	44.4	45.6	47.6	48.7	1.1	
기타·도매	32.2	34.0	35.3	37.1	38.1	39.3	38.8	39.9	39.4	40.7	40.2	41.9	43.4	1.5	
전체	34.5	36.5	37.7	39.5	40.5	40.9	40.1	41.4	42.2	43.5	44.3	45.9	47.3	1.4	
소매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0.1	
식품·음료·주류	30.6	32.9	38.8	40.5	40.5	41.0	38.2	40.0	39.9	39.1	38.6	39.6	42.0	2.4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2.9	34.6	34.8	41.4	40.7	38.6	39.2	38.6	34.8	35.9	35.4	36.3	38.0	1.7	
의약품·의료·장비·소매	47.7	49.4	45.7	44.9	44.7	50.7	44.0	46.7	45.8	46.7	50.0	49.3	48.4	▲ 0.9	
가구·주류·소매	38.9	37.5	44.4	46.2	50.0	50.0	48.8	57.4	41.7	51.5	48.6	55.0	53.0	▲ 2.0	
가전·정보기기·소매	34.1	39.5	38.7	41.7	44.1	42.1	47.5	44.1	46.1	49.2	46.2	46.4	53.2	6.8	☆
자동차·동·부품·소매	32.1	41.2	42.9	49.4	43.4	47.2	43.8	45.0	47.8	47.7	47.2	51.3	52.5	1.2	☆
전문상품·소매	33.0	32.7	35.1	37.0	36.9	37.2	37.0	37.0	37.4	37.6	39.7	39.3	38.3	▲ 1.0	
전통상품·소매	35.5	38.4	40.5	42.8	45.5	46.9	46.2	45.7	45.4	46.5	42.7	47.9	49.0	1.1	
기타·소매	36.7	36.7	31.0	33.3	40.5	35.7	38.9	37.5	33.3	41.7	33.3	38.9	41.7	2.8	
전체	34.0	36.3	38.4	41.2	41.1	41.9	40.9	41.1	41.1	42.4	41.7	43.0	44.0	1.0	
운수·창고	36.9	38.0	39.5	40.6	41.5	42.6	41.7	42.9	43.7	46.4	46.7	47.8	49.5	1.7	☆
서비스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0.1	
음식·음료	35.4	35.7	37.8	43.5	43.8	48.0	47.5	45.2	45.6	44.3	38.9	40.5	45.8	5.3	
전기·통신	48.7	53.8	53.0	55.0	56.4	55.0	54.5	51.7	55.6	51.7	54.5	50.0	54.2	4.2	
전기·가스·수도·열·냉·난·방	37.5	43.8	45.8	40.5	48.1	48.1	48.1	51.7	48.1	48.1	45.8	48.6	50.0	46.7	▲ 3.3
리스·임대	45.2	45.3	48.4	49.9	49.6	50.7	50.7	51.2	51.6	53.5	57.0	56.2	55.8	▲ 0.4	
여행·호텔	37.2	38.4	40.1	45.8	48.2	49.1	48.3	51.4	50.8	50.9	46.9	49.5	50.5	1.0	
오락·서비스	36.7	38.5	38.5	40.6	41.0	38.5	40.5	36.7	38.6	39.5	39.2	40.8	41.0	0.2	
방송	38.5	41.7	37.8	43.8	43.5	49.0	44.0	45.1	45.4	49.1	48.1	45.1	46.9	1.8	
엔터테인먼트·경비·검사	37.6	40.7	44.0	43.3	43.3	44.8	43.7	43.5	45.0	45.7	47.6	46.3	47.7	1.4	☆
광고·광고	34.5	35.4	38.9	40.8	42.5	42.4	42.6	42.3	42.5	41.9	43.2	41.0	43.2	2.2	
정보·서비스	42.2	45.2	47.3	47.7	49.5	49.3	48.7	49.4	50.6	51.3	51.8	53.3	53.4	0.1	
인쇄·판권·소개	44.9	44.7	48.7	50.3	50.3	50.6	52.2	52.6	54.5	55.7	57.2	57.5	58.5	1.0	
전문·서비스	41.1	44.3	46.9	47.3	48.7	50.8	47.7	50.4	52.8	53.5	55.3	54.9	55.2	0.3	
의료·복지·보건·위생	40.8	45.3	45.7	48.0	49.0	48.8	47.3	45.7	46.9	45.0	47.3	50.3	51.0	0.7	
교육·서비스	38.3	46.8	46.8	45.3	48.0	47.0	46.7	46.4	47.1	42.0	43.8	44.2	43.3	▲ 0.9	
기타·서비스	39.5	42.2	42.1	44.7	44.7	46.2	46.2	47.0	47.9	49.6	48.2	49.8	51.1	1.3	
전체	40.5	43.0	45.0	46.2	47.3	47.9	47.2	47.6	48.8	49.3	50.1	50.6	51.3	0.7	
기타	36.2	36.7	33.8	35.7	42.3	41.5	41.4	38.9	40.1	42.8	40.6	42.2	48.2	6.0	☆
각각 (10개업계별 『기타』 제외)	7.4	7.7	8.9	11.1	13.4	9.6	8.2	8.4	12.9	13.7	14.0	16.3	13.2		
중국·전출	35.5	37.5	39.2	40.3	42.3	43.5	42.8	44.1	45.3	46.4	46.7	48.8	50.3	1.5	☆
태양광발전	34.2	38.0	41.0	40.5	42.4	44.8	45.2	46.6	46.9	47.4	49.2	53.1	53.9	0.8	☆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과거최고는 이번 조사에서 2002년 5월 조사개시 이후 최고수준을 갱신했던 것을 나타냄.

※「태양광발전」은 셀·모듈, 부품·재료, 제조장치의 각제조회사, 에너지, 판매·시공을 포함함.

규모별: 규모간 격차 4 개월 연속 축소, 아베노믹스효과 소규모기업으로 파급

- 「대기업」(52.5, 전월대비 1.1 포인트 증가), 「중소기업」(48.6, 동 1.2 포인트 증가), 「소규모기업」(48.5, 동 1.6 포인트 증가) 모두 6 개월 연속 개선, 전규모에서 과거 최고를 갱신했다. 또한 규모간 격차가 4 개월 연속 축소되는 등 중소기업 개선이 현저했고 아베노믹스효과가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까지 파급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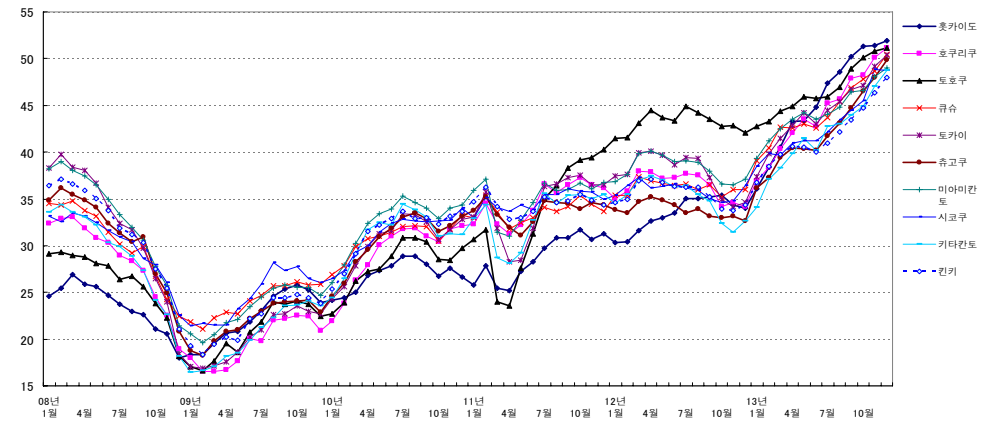
	12년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과거 최고
대기업	38.7	41.0	42.9	44.2	45.3	46.4	45.9	47.0	48.2	49.6	50.0	51.4	52.5	1.1	☆
중소기업	34.7	37.1	38.9	40.4	41.5	42.0	41.4	42.6	43.5	45.0	45.9	47.4	48.6	1.2	☆
(그 중 소규모기업)	33.9	36.9	38.9	40.1	41.2	41.6	41.1	42.2	43.1	45.1	45.8	46.9	48.5	1.6	☆
격차 (대기업-중소기업)	4.0	3.9	4.0	3.8	3.8	4.4	4.5	4.4	4.7	4.6	4.1	4.0	3.9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과거최고는 이번 조사에서 2002년 5월 조사개시 이후 최고수준을 갱신했던 것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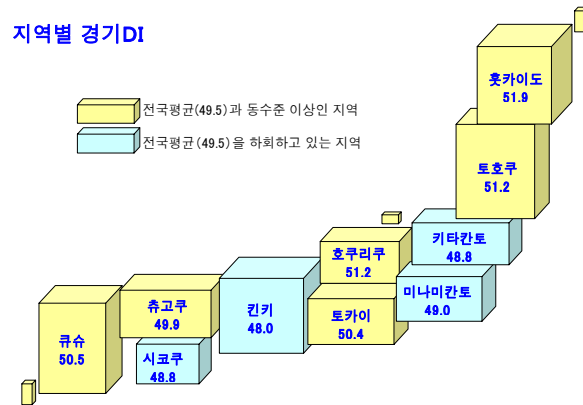
지역별: 10 지역 중 9 지역에서 전월을 상회, 그 중 6 지역이 과거 최고를 갱신

- 『홋카이도』(51.9) … 전월대비 0.5포인트 증가. 전체 10 지역 중 6개월 연속 1위. 1월부터 12개월 연속 개선되어 경기가 상승이 꾸준했던 1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증세전 막바지수요가 이어진 『부동산』(62.5, 동 5.6 포인트 증가)이 60 을 초과했고 가리비 어획량 증가, 미국산 감산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임·수산』(53.3, 동 5.7 포인트 증가) 등 5 업계가 50 대에 달했다. 그밖에 토호쿠지역의 지진부흥으로 인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건설』(59.8, 동 0.9 포인트 감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원부족, 자재가격상승 영향 등으로 2 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호쿠리쿠』(51.2) … 동 1.1 포인트 증가. 6 개월 연속 개선. 과거최고를 갱신하여 10 지역 중 2 위였다. 자동차부품, 건축철물, 건설기계, 트럭·버스업계가 호조인 『제조』(51.6, 동 2.1 포인트 증가)가 과거최고가 되는 등 10 업계 중 6 업계가 50 대 이상에 달했다. 또한 조사개시이후 처음으로 「대기업」(52.7) 「중소기업」(50.8) 「소규모기업」(51.7) 모두 50 을 상회했다. 현별로는 호쿠리쿠신칸센, 도로 등 공공 공사가 대폭 증가한 「이시카와」(58.1, 동 2.0포인트 증가)가 2개월 연속 전국 1위였다.
- 『큐슈』(50.5) … 동 1.8 포인트 증가. 5 개월 연속 과거최고를 갱신, 처음으로 50 을 상회했다.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관련 증가, 수급핍박으로 단가까지 상승한 『건설』(60.1, 동 3.0 포인트 증가), 소비세증세전 막바지수요가 이어진 『부동산』(50.0, 동 8.3 포인트 증가), 공공 공사 자재출하 활성화로 철강관련이 개선된 『도매』(48.7, 동 2.3 포인트 증가) 등 10 업계 중 8 업계가 개선되었다. 현별로는 「오кина와」(55.8, 동 2.4포인트 증가)가 3개월만에 개선, 47도도부현 중 2위였다. 또한 「오오이타」(5 위 : 54.9, 동 3.4 포인트 증가), 「쿠마모토」(6 위 : 54.1, 동 3.0 포인트 증가)도 높은 수준으로 『큐슈』에서 3 현이 전국 상위 10 현에 포함되었다.

지역별 그래프 (2008년1월 이후 월별추이)



지역별 경기DI



	12년 12월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과거 최고
홋카이도	34.0	36.1	38.4	40.5	43.2	43.3	44.8	47.4	48.6	50.2	51.3	51.4	51.9	0.5	☆
도호쿠	42.1	42.8	43.3	44.3	44.9	45.9	45.8	46.9	49.0	50.1	50.8	51.2	51.2	0.4	☆
기타칸토	32.7	34.1	37.1	38.3	39.9	41.4	40.1	42.8	43.0	44.0	44.9	47.0	48.8	1.8	☆
미나미칸토	37.1	39.4	41.3	42.5	43.5	44.2	43.5	44.1	44.8	46.4	46.6	48.1	49.0	0.9	
후쿠리쿠	34.2	36.9	38.4	40.3	42.0	43.5	42.8	45.2	45.7	47.9	48.3	50.1	51.2	1.1	☆
도카이	34.6	37.4	39.8	41.5	42.8	44.2	43.0	44.4	45.4	46.7	47.2	49.1	50.4	1.3	
킨키	34.3	36.7	38.5	39.7	40.6	40.5	40.0	40.9	42.2	43.4	44.7	46.3	48.0	1.7	
츄고쿠	32.6	36.2	37.2	39.4	40.4	40.4	40.2	41.7	43.1	44.7	46.5	48.0	49.9	1.9	☆
시코쿠	36.4	38.4	39.8	39.7	41.0	41.2	41.2	42.2	43.4	44.5	45.5	48.8	48.8	0.0	
큐슈	36.0	39.0	40.5	42.6	42.6	43.0	42.5	43.7	45.4	46.8	47.8	48.7	50.5	1.8	☆
격차	9.5	8.7	6.2	6.0	5.0	5.5	5.8	6.5	6.4	6.8	6.6	5.1	3.9		

※색깔없는 부분은 전월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과거최고는 이번 조사에서 2002년 5월 조사개시 이후 최고수준을 갱신했던 것을 나타냄.